

건강 칼럼

북한의 대외선전 변화

최근 북한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를 적극 활용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자신을 < 평양의 은아 > 라고 소개하는 여성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화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주도해서 영상을 올린 건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북한 내부를 소개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 여론에 대응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로 봐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어느 녹음 부스 안에서 헤드폰을 착용한 여성이 녹음 준비에 한창이다. 곧 이어지는 여성의 노래는 북한 노래 '푸른 버드나무'이다.

"나무야, 시내가의 푸른 버드나무야, 너 어이, 그 머리를 들 줄 모르느냐." 지난 2018년 남북 평화 협력 기원공연에서 남측 가수가 불러 화제가 된 북한 노래 '푸른 버드나무'다.

여성은 자신이 이 노래를 부른 이유도 직접 전했다. "모두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를 비관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공동의 적인 코로나19에 대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위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성은 북한 노래를 부르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의 인성과 공동 대응을 이야기 한다. 이 영상은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온라인 사회관계망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Echo DRRK'(에코 디퍼알케이)는 북한의 페이더라는 계정의 명칭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영상들로 봤을 때 북한 당국과 밀접한 영상이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다루는 내용 자체가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외부의 소식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직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실제 해당 계정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북한 측 대응 영상이 실리면서부터다.

유튜브 'Echo DRRK' 어느 계정은 "코로나19의 위험이 확인되자마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즉시 매우 결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주요 원인인 중국과 인접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계정은 해당 영상의 촬영 시기를 지난 2월 26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논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WHO 북한 대표부가 회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 북한은 자국 내 코로나19 발병 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제 여론은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었다. 여기에 해당 계정이 은아라는 여성을 등장 시켜 북한의 코로나19 예방 모습은 물론 평양 시내 곳곳의 모습을 전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대한 노골적인 충성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이 계정이 전파하는 내용만 살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전달 방법과 구성 형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평양 사제기실에 대한 외신

보도가 나오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해당 외신 보도를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라 못 박았다.

북한 주민들 생활상이나 북한산 생필품을 소개하는 등 비교적 정치색이 짙은 주제로 거부감을 낮추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 조선중앙TV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상품들을 설명까지 곁들여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평범한 일상이 북한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북한은 폐쇄적이고 통제된 사회다. 출연한 진행자나 인터뷰에 응하는 주민들도 북한 당국이 모두 선정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엔 촬영 여부를 떠나 자신의 관심에 따라 행동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 아나문서의 목소리나 배경 음악으로 철저히 차단됐던 현장음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북한 선전 영상물들은 SNS 계정들을 통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SNS 계정들은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상세하게 북한 내부를 전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기뻐한 선전물이라고 해도 바깥 세계에서 북한의 입장과 내부 사회를 들여다볼 주요 통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원래 한반도 문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진행되어 왔다. 일희일비(一喜一悲) 할 일은 결코 아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북한 시각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북한 체제의 보장 문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완화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을 먼저 해결하면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미 양측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북미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상호 양보와 타협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비밀 접근법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전략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마지막 제안의 문제점은 '선(先) 북한의 비핵화 조치, 후(後) 미국의 보상'이라는 종래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미국도 선(先) 비핵화 조치 요구를 고집하지 말고 북한의 동시 행동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요즘 북한의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내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대응행으로 인해 국경을 폐쇄한 후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에 태풍과 대홍수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체제의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이 결실하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노인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의 의미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노인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이 4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18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4월 26일과 27일은 전주시 지역 200명의 노인자원봉사자가 연합회 3층 강당에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2021년 올해는 총12개(약1,250명) 노인자원봉사 클럽과 5개의 행복나눔 봉사단(전문봉사단,100명)이 도내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방역 봉사단, 독거 어르신 가정의 농촌 일손 돕기 활동 등을 한다. 사회복식 시설과 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공연 활동, 그리고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예방 체조와 항공 지도 등도 실시한다. 그 밖에 청소년 안전을 위한 등하교길 안전 방법 활동, 등산로의 환경 감시 활동, 마을의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한 마을 가꾸기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

김두봉 연합회장은 "자원봉사

는 스스로 원하여 무보수성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 받는 노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교육은 왕진숙 센터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주우리병원 시태봉 원장은 자원봉사의 특성과 자원봉사자의 자제에 대하여 강의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다. 사랑의 손길로 생기를 더하여 아름다운 사회 구현을 위한 노인자원봉사 클럽의 활동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활기차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노인자원봉사 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여전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이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에 나선 어르신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 아이다호 중학교, 학생 등 3명 부상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아이다호주 릭비에 있는 릭비 중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해 현장에서 대피한 학생이 보호자와 만나 인도하고 있다. 경찰은 한 여학생이 총을 쏘 학생 2명과 관리인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애초 경찰이 남학생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으나 총을 쏜 사람은 여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산재 분출하는 인도네시아 시나봉 화산



지난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카로에 있는 시나봉 화산이 화산재를 분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120여 화산 중 하나인 시나봉 화산은 환태평양 화산대인 '불의 고리'에 있어 분화가 일어나기 쉬우며 1600년 첫 분출 뒤 400여 년간 잠들어 있다가 2010년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